

동유럽 주식시장 11월 동향 및 12월 전망

박성우

2017.12.06

☎ 02-3774-0451

✉ p3swo@futures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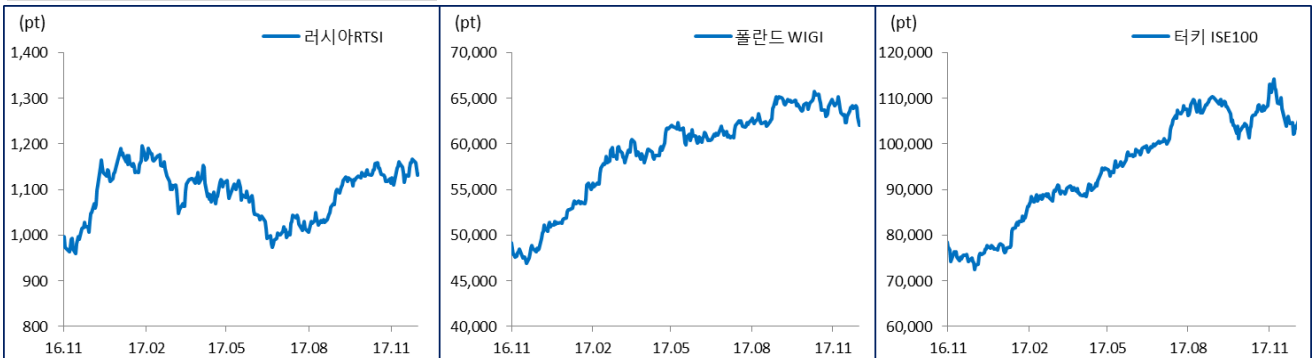
■ 11월 동향

MSCI-EM Index: 1,120.79(+1.71, +0.15%) / 러시아 RTS Index: 1,131.56(+18.15, +1.63%)

폴란드 WARSAW WIG: 62,440.31(-2426.26, -3.74%) / 터키 ISE100: 103,984.40(-6,158.2, -5.59%)

- 11월 동유럽 증시는 국제유가 상승세, 글로벌 경기 개선 지속에도 정치적 불확실성 및 연초 이후 큰 폭의 증시 상승으로 인한 차익실현 등을 반영하여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
- **러시아:** 러시아 경제는 지난달 단기 부진을 넘어 글로벌 경기 개선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루블화와 시장 금리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. 국제 유가가 OPEC의 감산 연장 기대 및 중동 정치 불안을 반영하여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상승함에 따라 러시아 증시는 10월 부진을 딛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
- **폴란드:** 산업생산판매, 소매판매, 실업률 등 경제지표 호조가 이어지며 실물경기 개선세를 지속하였습니다. 다만 국내 극우파 민족주의 강화와 반EU 정서 확대 등 정치적 리스크로 10월 폴란드 증시는 하락했습니다.
- **터키:** 지난달에 이어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 되며 시장금리, 달러/리라화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. 소버린 리스크 상승에 따른 투자자 이탈에 따라 증시는 하락하였습니다.

[차트. 동유럽 증시 최근 1년 간 추이, p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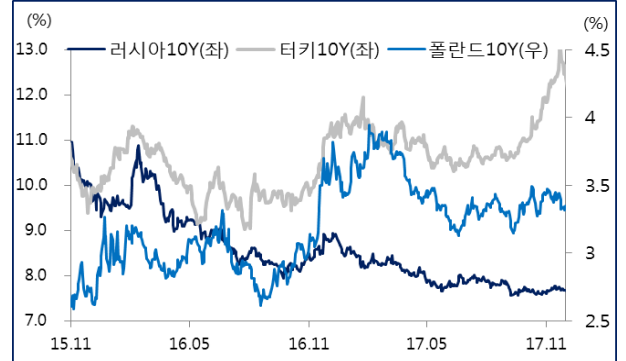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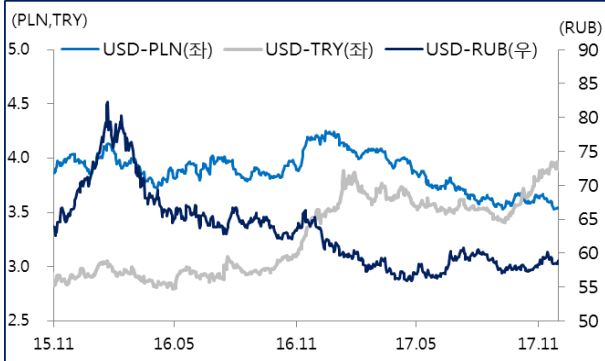


■ 12월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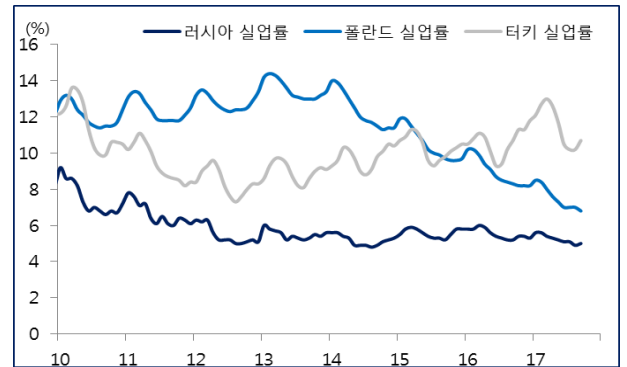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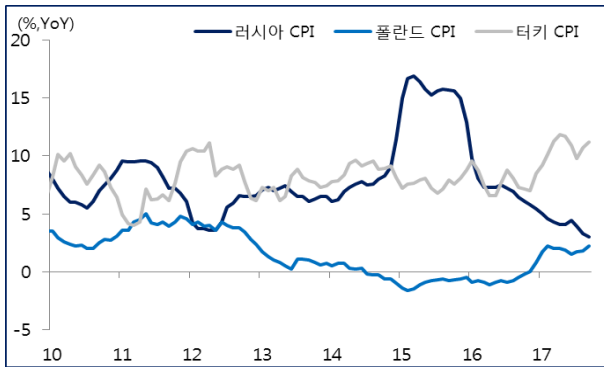
- 12월 신흥국 증시는 미 세제개편안 기대 속 신흥국 투자 지속, 선진국 경기 개선세 확대, 점진적 긴축 전망을 반영하여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 다만 일부 국가에서의 정치적 갈등 장기화는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**러시아:** 러시아 경제는 OPEC 감산 합의 및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기초적 국제유가 상승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됩니다. 안정된 루블화 및 시장금리, 완화된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러시아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다만 미국발 정치적 리스크 재부각 위험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
- **폴란드:**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다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, 반EU 정서의 확산, 즐로티화의 높은 절상률 등은 폴란드 증시에 부담요인이 될 것입니다.
- **터키:** 지속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저하, 환율 변동과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 지속은 터키 경제의 불안 요인입니다. 소버린 리스크 확대는 터키 증시에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.

■ 동유럽 주요 경제지표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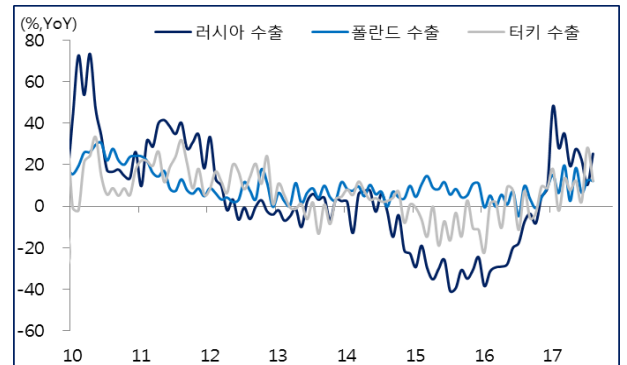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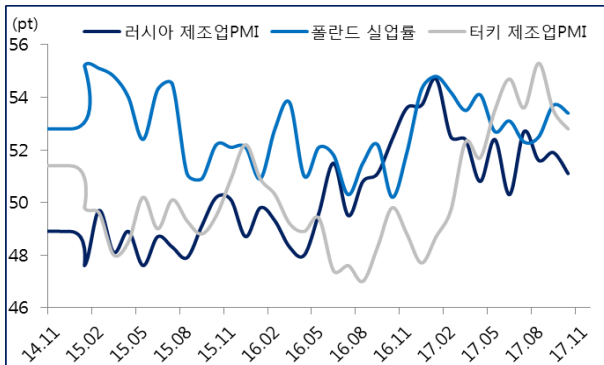
[차트. 동유럽 3국 환율 및 국채 수익률]



[차트. 동유럽 3국 인플레이션, 실업률]



[차트. 동유럽 3국 제조업, 수출]



출처: Bloomberg, NH선물

본 자료는 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(www.futures.co.kr) 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